분에 넘치는 한국 해외여행 지출

韓銀 '한·일 경상수지 변동추이 비교'

여행비 지출 日보다 3.7배나 많아

日, 경상수지 흑자 폭 한국의 35배

지난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2천105억달러로 한국 60억달러의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한일 경상수지 변동추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59억5천만달러로 지난 2000년 122억5천만달러의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2천105억3천만달러로, 2000년의 1천194억5천만달러에 비해 1.8배로 불어났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소득수준 대비 해외여행 지급액(유학포함)이 일본의 3.7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여행지급액 너무 많다"=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된 것은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2000년 458억5천만달러에서 작년에 211억달러로 축소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 같은 기간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28억5천만달러에서 205억8천만달러로 확대됐다.

일본의 서비스수지 개선에는 여행부문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 이 나라의 여행수지 적자폭은 2000년 285억1천만달러에서 2007년 171억5천만달러로 줄었다. 이는 일본의 비자면제·완화조치, 관광객 유치노력 등으로 입국자수가 매년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한국의 여행수지는 작년에 150억9천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이는 한국인들이 소득수준에 비해 해외여행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한국의 대외 여행지급액은 작년에 208억9천만달러로 일본 264억3천만달러의 79.0% 수준이다.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많아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여행지급액은 2.2%로 일본의 0.6%에 비해 3.7배에 이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일본의 소득수지 한국의 180배=작년에 일본의 소득수지는 1천389억3천만달러로 한국 7억7천만달러와 비교할 때 180배나 된다.

소득수지 가운데 배당수지는 403억9천만달러 흑자로 한국의 59억8천만달러 적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자수지 흑자는 982억9천만달러로 한국 62억7천만달러의 15.7배였다. 소득수지에서 양국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순 국제투자 잔액에서 한국이 마이너스인데 비해 일본은 큰 규모의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상품수지는 작년에 1천46억3천만달러로 한국 294억1천만달러에 비해 3.6배였다. 그러나 양국간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차이가 4.5배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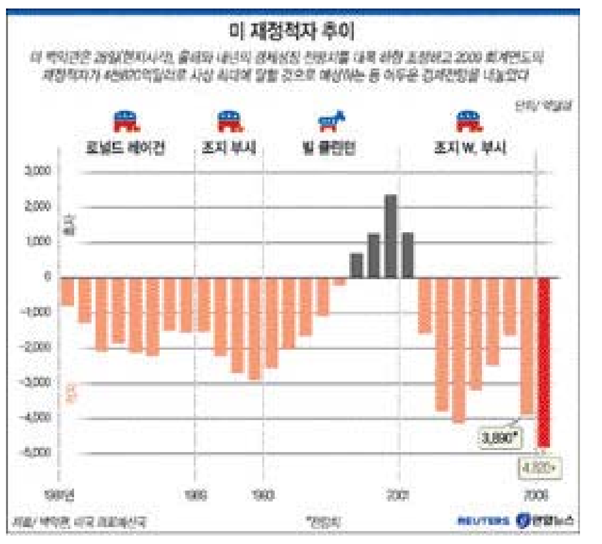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의 일본에 대한 상품수지는 253억1천만달러 적자인데 비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 수지는 271억4천만달러의 흑자였다.

/연합뉴스

美 재정적자 사상최대

내년 4,800억달러 전망 … 올 경제성장 전망치도 대폭 하향조정

미 백악관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2009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4천8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어두운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올해 미국의 성장 전망치를 연초 예상했던 2.7%에서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예산국은 이날 주택시장 침체와 신용경색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여전한 불안 때문에 미국의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내년 전망치도 당초 예상했던 3.0%에서 2.2%로 내렸다.

백악관은 또 경기부양책에 따른 세금환급과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10월부터 시작되는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4천820억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8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3천890억달러로 예상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월에는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4천100억달러에 달한 뒤 2009 회계연도에는 4천7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첫해에 재정문제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올해 물가상승률이 3.8%에 달한뒤 내년에는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국제금융시장이 여전히 취약하다면서 미 주택시장의 침체가 바닥이 안 보이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신용부실이 성장의 둔화를 더 오래 끌고갈 것이라고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았했다. /연합뉴스

8월 경기전망 '흐림'

금리상승·수출 채산성 악화 BSI 80.8 … 3개월째 하향

전경련 600대 업체 조사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0.8로 나타나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업종별 매출액 규모 600대 업체를 대상(514개사 응답)으로 8월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80.8로 나타나 6월(95.3)과 7월(83.2)에 이어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제조업(82.9)과 비제조업(85.5) 모두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기전망이 비제조업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조사된 것은 5개월만이다.

기업들이 8월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과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페니메이, 프레디맥 등 미국 양대 모기지사의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아시아권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크게 고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달 들어 금리가 상승하고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최근 8년내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도 8월 경기부진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수출 채산성이 악화된 중화학공업(78.0)의 부진이 두드러졌고, 비제조업은 미분양주택 증가, 중소건설업체 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59.6)의 부진이 크게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채산성(84.8)이 큰 폭으로 부진한 가운데 고용(97.4), 투자(91.8), 자금사정(89.8), 내수(87.2)등 여러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재고(107.0)도 전월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수출(100.0)의 경우 5개월만에 보합세를 보였다.

600대 기업중 매출액 규모에 따른 가중지수 8월 전망치는 82.2로 나타나 대기업들 역시 8월 경기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7월 실적치(80.8)는 당초 전망치(83.2)를 밑도는 수준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7월에는 비제조업(78.0)이 건설, 전기 및 가스업 등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했고, 제조업(82.9) 역시 그나마 호조를 보이던 수출이 약보합을 보이며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다음달 경기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전망이 사상 처음으로 전 업종에 걸쳐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며 중소기업 경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천395개사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8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전달보다 1.9P 떨어진 76.3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복숭아 큰 잔치 29일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회 전주 명품 복숭아 큰잔치에서 한 초등학생이 복숭아를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커피값 오른다

동서식품, 7.8~9.2% 인상

동서식품은 내달 1일부터 인스턴트 커피 전 제품의 출고가격을 7.8-9.2%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력제품인 '맥심 커피믹스'(1.2㎏)의 출고가는 1만54원에서 7.8% 오른 1만835원, '맥심커피'(170g)는 5천115원에서 9.2% 오른 5천588원이 된다.

그러나 맥스웰하우스와 맥심 캔커피 등 커피음료 제품은 이번 가격 인상에서 제외됐다.

동서식품은 국제 커피원두가격이 최근 1년간 26-27% 오르는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유가 · 환율상승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가중으로 제품가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또 미국發 악재

코스피 31P 급락

증시가 다시 불거진 미국발 악재로 급락하며 1,560선으로 밀려났다.

2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1.09포인트(1.95%) 내린 1,567.20에 마감됐다.

이날 지수는 국제유가 상승, 뉴욕증시 하락, 미국 경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정적 전망에 따라 26.13포인트(1.63%) 내린 1,572.16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늘려 장중 1,55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뉴욕증시는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한 기업실적과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다.

특히 IMF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등의 구조적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가 바닥이 안 보이는 상태여서 신용부실이 성장둔화를 더 오래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 우려를 자아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사흘째 계속됐다. /연합뉴스

밀가루·사료용 귀리 등

41개 품목 관세 없앤다

내달부터 시행

오는 8월 초부터 밀가루, 알루미늄괴, 메탄올, 사료용 귀리, 견사, 면사 등 41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45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석유류 등에 대한 제1차 긴급할당관세 적용에 이은 이번 제2차 시행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의 하나이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세율 1%인 알루미늄괴를 비롯해 밀가루(현행세율 4.2%), 견사·코코넛 분말·유리제 광학용품(8%), 면사(4%), 종자용 호밀·사료용 귀리·마그네시아(3%), 메탄올·코코아 원두·형석(2%) 등 37개 품목이 무세화(無稅化)된다. 또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3%인 아크릴로니트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과 세율 4%인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등 모두 4개 품목도 무세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52만t→87만5천t), 향료(1천200t→1천800t), 농약원제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수량을 늘렸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아울러 중밀도 섬유판의 경우 관세율을 8%에서 5%로 낮춘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지원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1천500억원 정도이며, 여기에 기존 할당관세 적용품목까지 합할 경우 연간 2조원 안팎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했다.

/연합뉴스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

내달부터 30개월이면 '끝'

8월부터는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지개발절차를 개선하고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택지지정단계는 물론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택지개발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서 택지개발소요기간이 17개월(50개월→33개월) 줄어든 데 이어 다시 3개월이 단축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완료된다.

개정안은 또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허용했다. 이는 상가 분양자 보호와 사업지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지금은 상속받는 경우나 이주자 택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신일본제철 공장 화재 29일 일본 서남부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에 있는 신일본제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회사측은 이날 철근과 강관을 만들어내는 생산라인을 올스톱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채용예정자과정]임베디드 리눅스과정 국비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1	062-940-3500
㈜남양모터스	㈜남양모터스 렉서스 신입/경력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384-7713
한국정보보호인식㈜	회계/경리/인사/총무 관리직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31	062-521-1122
㈜HRN	[순천]SK텔레콤 기지국 유지보수직 관리담당 남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7/31	062-529-2671
서린사이언스	전산관리/장부정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8/01	062-265-0071
㈜대창 E&T	SK텔레콤 대창대리점 매장관리/영업관리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1	062-383-6831
첨단참사랑요양병원	병원 회계, 경리 경력직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8/05	062-971-7766
㈜엘시티	자재관리담당(신입)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8/05	062-374-1122
㈜청전	광고디자인 전문인력	대졸/경력3년	2200~2400	08/05	062-230-2510
㈜평주	평화볼링센터에서 공무실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8/06	062-528-0092
㈜토담건설	조경 중급이상 기술자 경력직	초대졸/경력5년	2800~3000	08/08	062-574-9401
㈜신영모텍	해외영업 및 통역 (기술영업)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8	062-944-7010
삼미기어산업	기계가공파트 직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8/08	062-954-030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펀드도 단축코드로 수익률 등 확인

펀드도 주식처럼 종목코드만 알면 수익률, 판매수수료,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산운용협회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선진적인 펀드 관련 공시·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공시·통계시스템을 전면 개편, 29일 오후 4시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펀드 단축코드를 이용한 펀드정보 검색가능 ▲펀드 공시내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강화 ▲회사 및 펀드별 공시전용 뷰어 신설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통계정보를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마련 ▲펀드 판매통계 및 해외투자펀드 보수·수수료 통계확대 등이다. /연합뉴스